

케이스탯 2022년 9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잘못된 방향’ 63%, 상승세 꺾여
- _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70%, 소폭 하락
- _ 정부 신뢰도 : ‘신뢰’ 28%, 2개월 연속 20%대
- _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23%, 소폭 상승
- _ 정당 호감도 : 호감 정당 ‘있다’ 29%, 4%p 상승
- _ 다음 달 물가 전망 : ‘오를 것’ 73%, 소폭 상승
- _ 부동산 가격 전망 : ‘내릴 것’ 44%, 상승세 지속
- _ 주식 가격 전망 : ‘내릴 것’ 45%, 대폭 상승

■ 9월 특별지표 : 사회통합 및 계층상승 가능성

- _ 사회통합성 평가 : 우리 사회 ‘분열됐다’ 87%
- _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 ‘없다’ 50%, 상승세
- _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개인노력으로 ‘불가능’ 71%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2년 9월 4일(일) ~ 9월 6일(화)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1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3.08\%$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2년 8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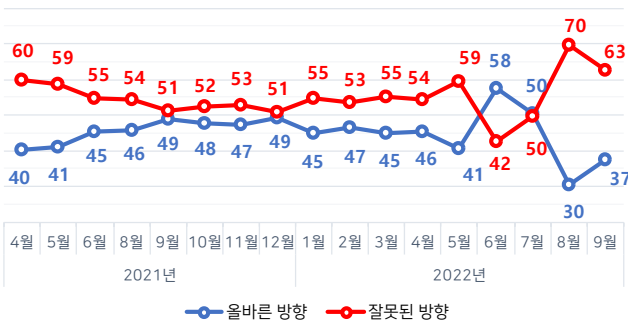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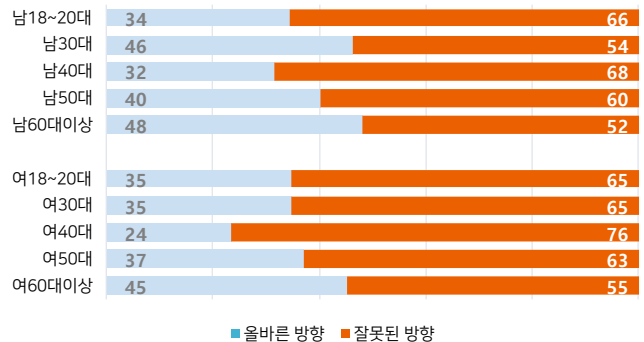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잘못된 방향' 63%, 상승세 꺾여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해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큰 폭 하락하며, 지난 2개월 연속된 상승세가 꺾임
 - 2022년 9월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 37% vs '잘못된 방향' 63%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남자 40대 △여자 40대 △호남 △진보층 등에서 높았음
-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PK △자영업자, 블루칼라 △사회이의 중시층 등으로 나타남
 - 한편, 보수층은 긍정·부정 응답이 팽팽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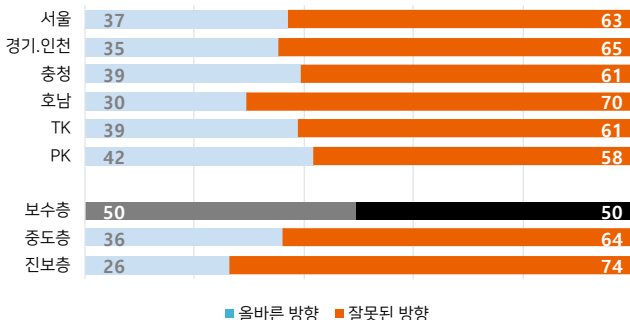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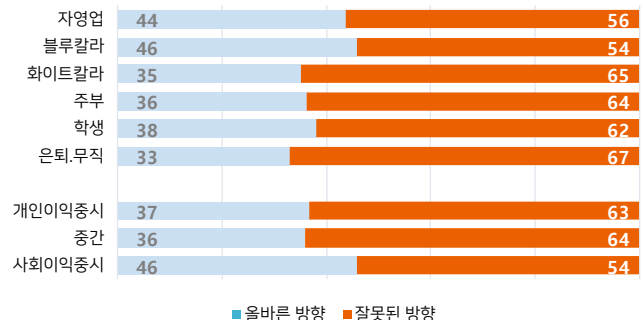
2022년 9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성/연령별 (단위:%)



2022년 9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9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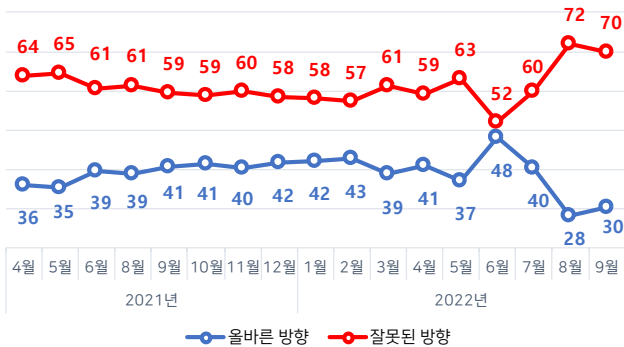
Kstat Point

- ☑ 2개월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에 대한 부정평가가 9월 들어 하락함
 - : 대한민국 방향성 평가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와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는데, 최근 주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가 8월 2주 65%, 8월 4주 63%, 9월 2주 59%
 - : (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추이 : 8월 2주 66%, 8월 4주 64%, 9월 1주 63%, 9월 3주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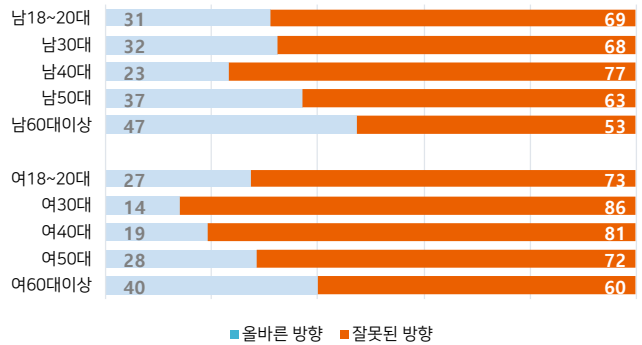
□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70%, 소폭 하락

-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에 대한 부정평가가 소폭 하락했지만, 지난달과 같이 70%대를 기록함
 - 9월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 30%, '잘못된 방향' 70%로 나타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며,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40대 △여자 3040세대 △호남 △진보층 등임
- 상대적으로 '올바른 방향'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남자 50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충청, PK △보수층 △자영업자, 블루칼라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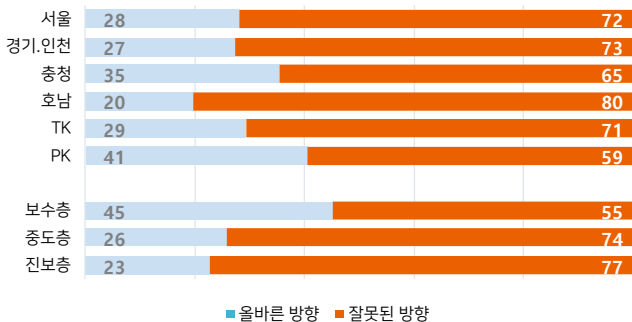
경제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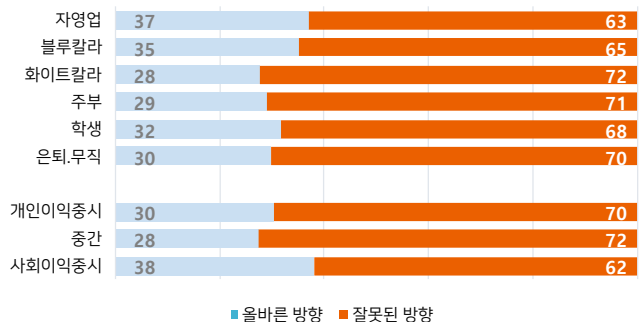
2022년 9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2년 9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2022년 9월 경제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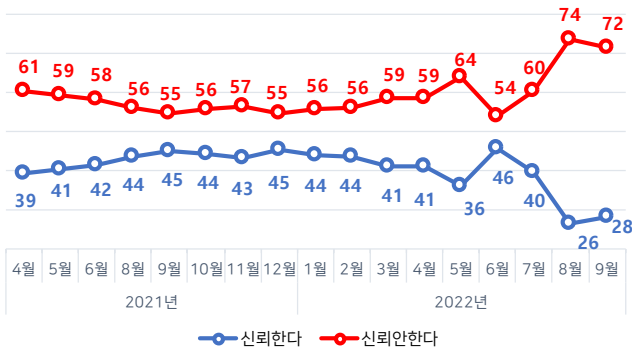
Kstat Point

- ☑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정서가 완연한 것으로 보임
 - : KDI는 '9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대외 수요가 둔화하며 경기 회복세가 약해지는 모습이다.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이 파급되면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 됐다"고 밝힘
 - : 지난 18일 한국경제신문이 경제 전문가(34명)를 대상으로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인가?'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제 전문가 과반수(56%)가 '한국 경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에 들어섰다고 진단함
- ☑ 한편, 경제 방향성에 대해 긍정 의견이 소폭이나마 상승한 것이 주목됨
 - : 지난 8월과 비교해, 계층 전반의 여론이 개선된 가운데, 긍정평가를 끌어올린 주요 계층은 남자 50대, 여자 18~20대, 여자 60대 이상, 충청, PK, 자영업자,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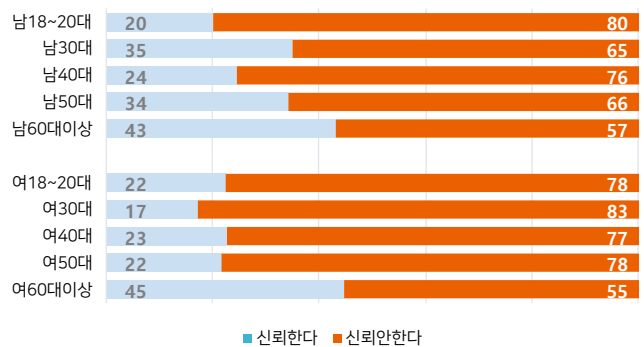
□ 정부 신뢰도 : '신뢰' 28%, 2개월 연속 20%대

-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20% 후반 선에 머무름
 - 9월 조사 결과, '신뢰한다' 28% vs '신뢰 안 한다' 72%로, 긍정평가가 지난 8월 대비 2%p 상승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남자 18~20대 △여자 2050세대 △경기.인천, 호남 △진보층 등에서 두드러짐
- '신뢰한다'는 긍정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5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TK, PK △보수층 △자영업자,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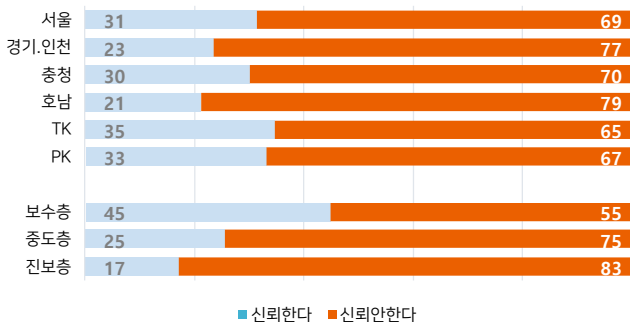
정부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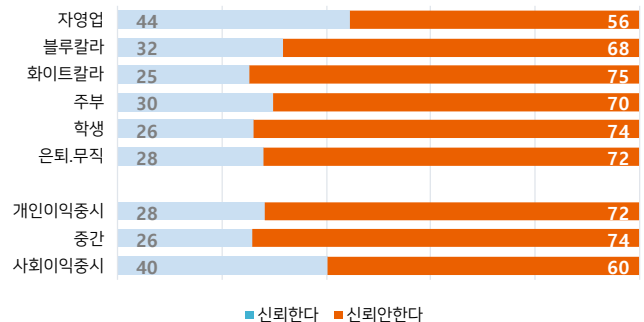
2022년 9월 정부 신뢰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2년 9월 정부 신뢰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2022년 9월 정부 신뢰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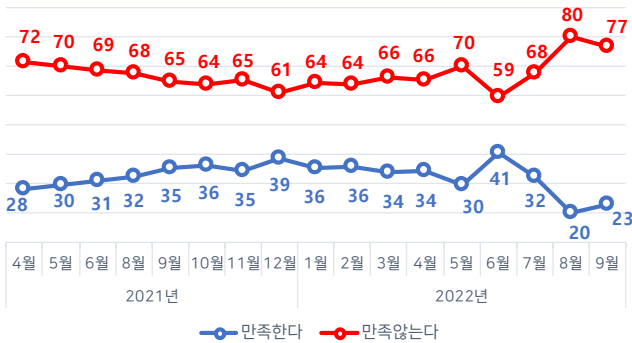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부 신뢰도가 여전히 30%를 밑돌며, 불신도와 차이가 40%대를 기록하고 있음
 - : 윤석열 정부는 불명확한 국정 비전, 인사 논란, 정책 혼선, 여당 내홍 등으로 지난 6월 이후 급격히 추락한 국민적 신뢰를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국정운영 동력이자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인만큼 국민과의 신뢰감 형성이라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음
- ☑ 한편, 정부의 핵심 지지층 이탈이 멈춘 점이 눈에 띄는데, 지지층 결집을 계기로 회복탄력성을 이어 갈지 주목됨
 - : 6월 이후 전월 대비 정부 핵심 지지층의 신뢰도 변화를 보면, 하락세가 확대하다가 이번 달 들어 상승함
 - : 남자 60대 이상(7·8·9월 각 -1%p → -22%p → +6%p), 여자 60대 이상(-8%p → -13%p → +6%p), TK(+3%p → -17%p → +2%p), 보수층(-8%p → -10%p →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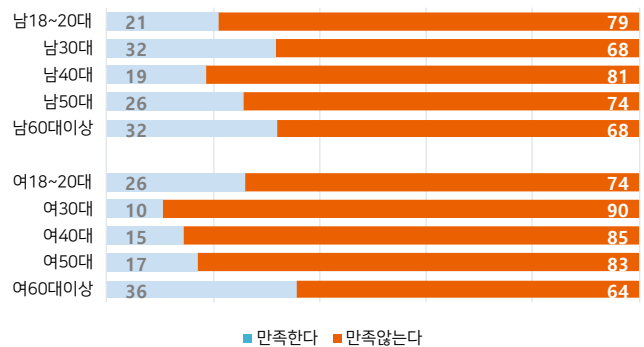
□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23%, 소폭 상승

- 정부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23%, '만족 않는다'는 응답은 77%를 기록해, 부정평가 우위세가 뚜렷함
- 전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하며, 특히 △여자 3050세대 △호남 △진보층 등에서 두드러짐
- '만족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PK △보수층 △자영업자, 블루칼라, 학생 △사회이익 중시층 등으로 나타남

정부정책 만족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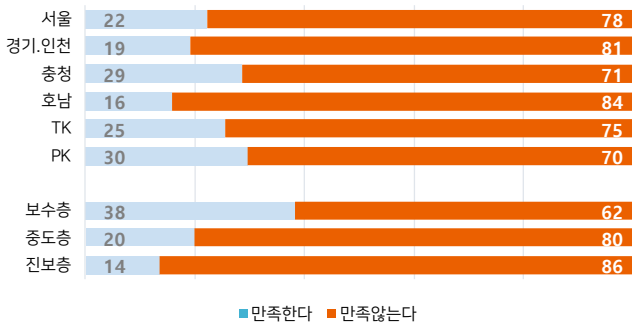


2022년 9월 정부정책 만족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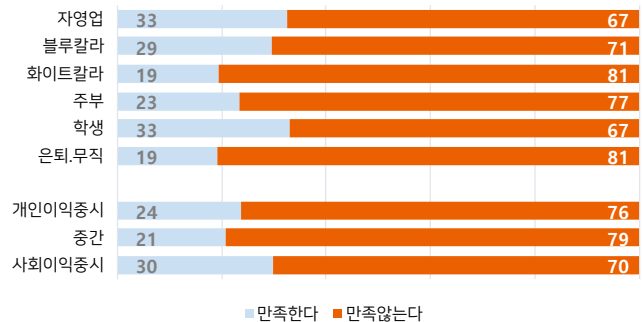
2022년 9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2022년 9월 정부정책 만족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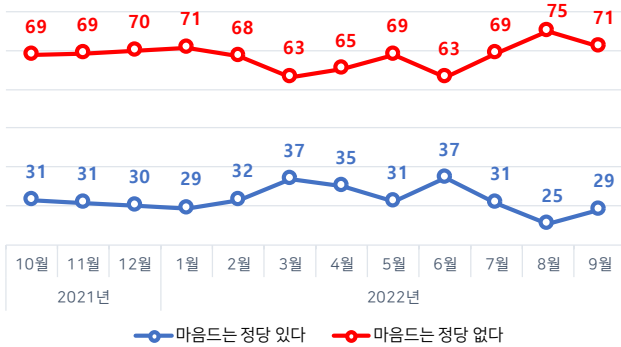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난 8월과 비교해 정부 정책 만족도가 계층 전반에서 상승함
 - 그 배경으로 정부의 태풍 '힌남노' 대응과 '약자복지' 등이 꼽힘
 - 태풍 힌남노 대응에 대해 국민 5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자료 : 한국여론평판연구소(9.6.~9.7. 조사)
 - '약자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69.1%가 찬성한다고 응답함 ※ 자료 : 한국갤럽(9.16.~9.17 조사)
- ☑ 한편, 정부의 주요 정책 중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다른 분야에 비해 저조한 것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 민생경제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상황을 설명하는 지점으로 보임
 - 9월 2주 기준, 정부의 국정 분야별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사회 안전 정책' 39%, '대북 정책' 39%, '복지 정책' 38%, '외교 정책' 37%, '부동산 정책' 37%, '경제 정책' 30% 등 순으로 나타남 ※ 자료 : NBS지표조사
 -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30%)가 동일 기간 수행한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32%)보다도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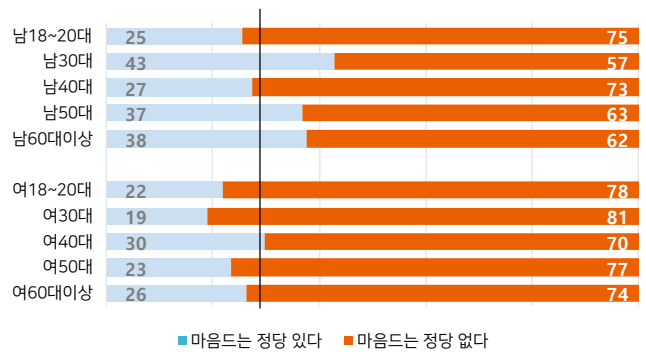
□ 정당 호감도 : 호감 정당 '있다' 29%, 4%p 상승

- 정당 호감도 관련,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이 4%p 상승하며, 긍정 응답의 하락세가 꺾임
 - 9월 조사 결과, '마음에 드는 정당 있다' 29% vs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71%
- 모든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2030세대, 50대 △충청, TK △중도층 △주부, 학생 등으로 나타남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30대, 50대 이상 △진보층 △블루칼라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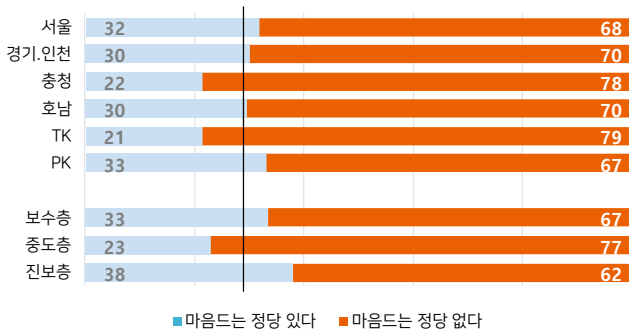
정당 호감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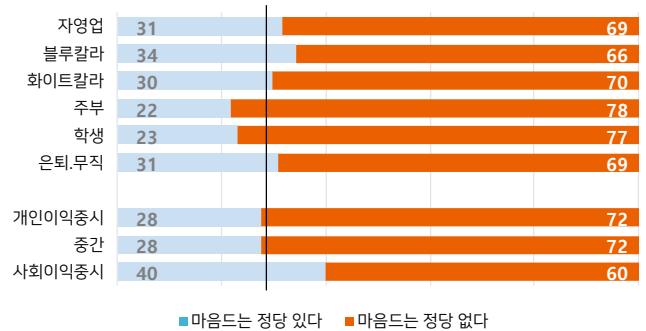
2022년 9월 정당 호감도 : 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단위:%)



2022년 9월 정당 호감도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2022년 9월 정당 호감도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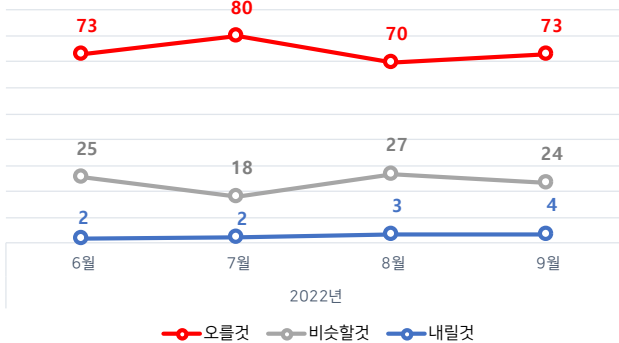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정당 호감도가 보수층보다 진보층이 높은 가운데, 격차가 전월보다 7%p 좁혀짐 (8월 12%p→9월 5%p)
 - : 8, 9월 조사결과, 보수층은 29%→33%로 4%p 상승하고, 진보층은 41%→38%로 3%p 하락함
 - ☑ 보수층의 긍정여론 증가는 국민의힘의 '새 비대위원회 추진'과 이른바 '윤핵관(권성동 등) 후퇴'로 요약되는 당내 혼란 수습안에 대한 동의와 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 과반은 '지난달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판결 후, 여당이 당헌당규를 고쳐 새 비대위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없다'(52.1%), '여권 혼란 책임'은 '이준석 전 대표에 있다'(53.4%)고 응답함
 - ☑ 반면, 진보층의 비호감도 상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약재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한편, 호남의 호감도가 전월 대비 큰 폭(+11%p) 상승하며, 이 대표 직무수행에 대한 기대도 나타남
 - : 같은 여론조사에서 '이대표가 야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해 호남의 긍정평가가 73%에 달했음
- ※ 여론조사 자료: 코리아리서치(9.7.~9.8.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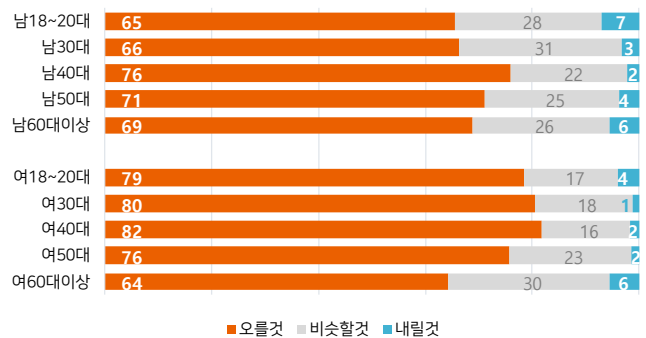
□ 다음 달 물가 전망 : '오를 것' 73%, 소폭 상승

- 다음 달 물가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오를 것' 응답이 소폭 상승하며, 확고한 물가 상승 전망세를 보임
 - 9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오를 것' 73%, '지금과 비슷할 것' 24%, '지금보다 떨어질 것' 4%로 나타남
- 모든 계층에서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2040세대 △진보층 등에서 높았음
- 한편,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국민전체(24%) 보다 높고, 물가상승을 상대적으로 낮게 전망한 계층은 △남자 18~20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서울 △보수층 △자영업자, 블루칼라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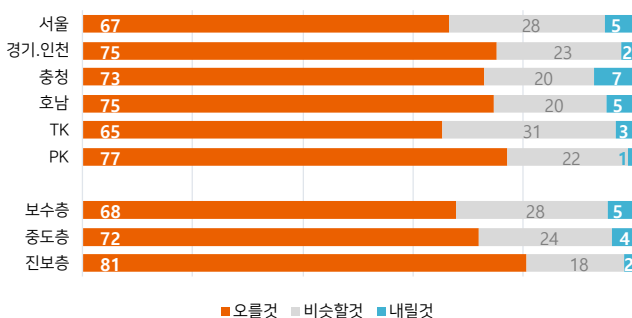
9월 '익월 물가 전망'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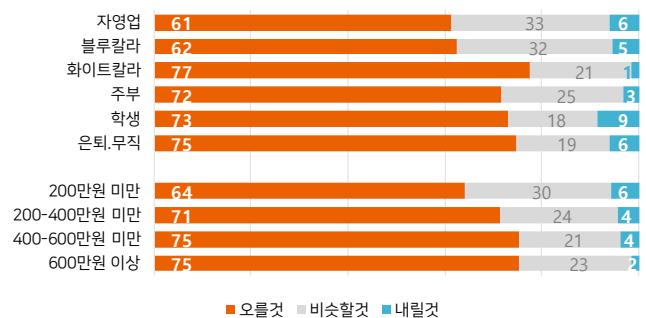
9월 '익월 물가 전망' : 성/연령별 (단위:%)



9월 '익월 물가 전망' : 지역별, 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 조사,단위:%)



9월 '익월 물가 전망' : 직업별, 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 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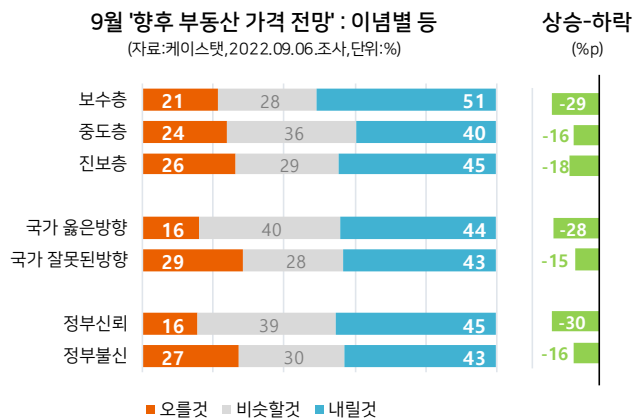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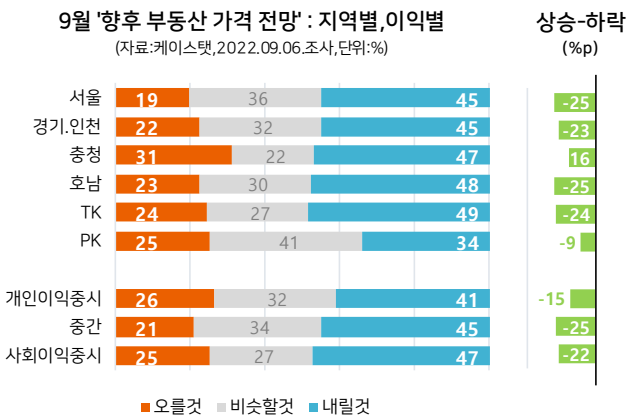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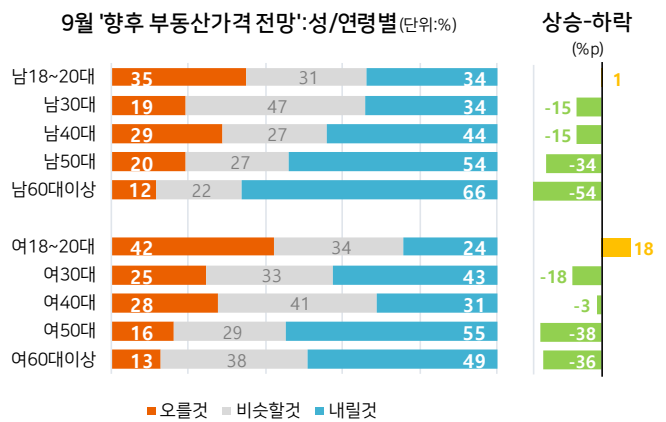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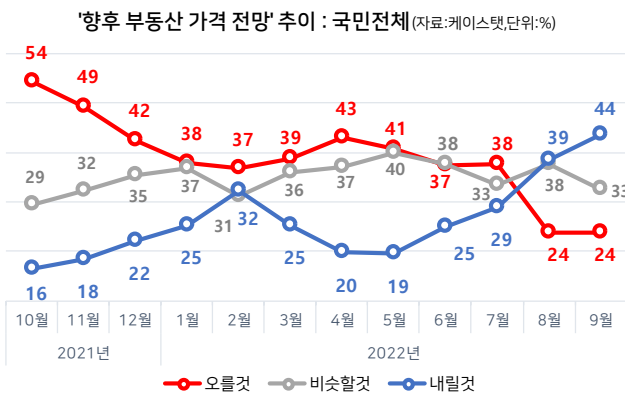


Kstat Point

- ☑ 물가상승 전망 여론이 재상승한 것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가중된 상황을 대변하는 것으로 해석됨
 - : 최근 고환율에 따른 수입 물가 부담과 폭우·태풍 등 기상 요인 등이 겹치면서 농산물·라면·스낵류를 포함한 먹거리 가격이 일제히 오름
 - : 8월 31일 기준 배추 한 포기 판매 평균가격은 7,032원으로 전년(3,437원) 대비 104.6% 급등함
 - : 9월 초에는 농심·오리온 등 주요 식품업체들이 평균 10%를 웃도는 제품 가격 인상을 예고했음
- ☑ 또한 국민은 환율, 글로벌 에너지 가격 등 불안정한 대내외 변수로 인해 물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며,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을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 최근 정부는 기존 전망인 '10월 물가 정점론'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은행은 '신중론'으로 돌아서며, '하반기 중 물가 정점 예상하나, 정점 시기 지연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힘

□ 부동산 가격 전망 : '내릴 것' 44%, 상승세 지속

- 부동산 가격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내릴 것' 44%, '지금보다 오를 것' 24%로, 하락전망 비중이 커짐
 - 9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내릴 것' 44%, '지금과 비슷할 것' 33%, '지금보다 오를 것' 24%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 '차이'(오를 것-내릴 것)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해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이 높은 가운데, 특히 △남자 50대 이상 △여자 50대 이상 △서울, 경기·인천, 호남, TK △중간이 익 중시층, 사회이익 중시층 △보수층 △국가방향 긍정평가층 △정부 신뢰층 등에서 뚜렷했음
-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한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18~20대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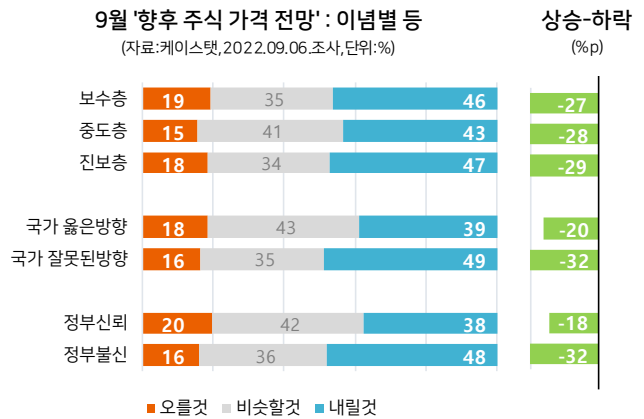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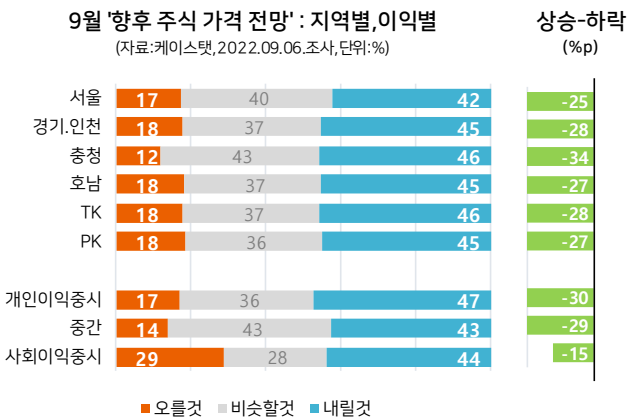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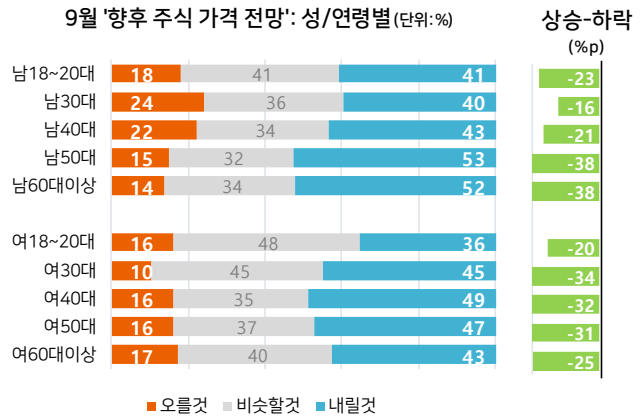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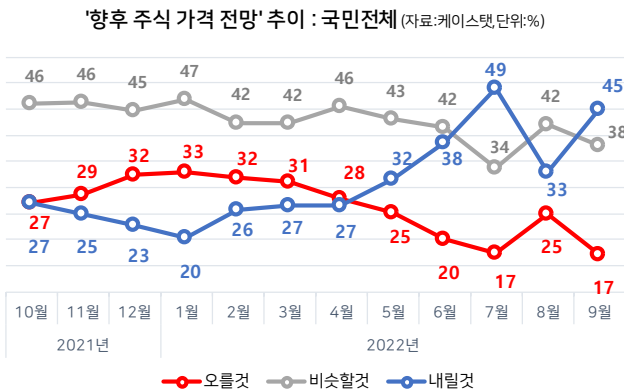


Kstat Point

- ☑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이 작년 2월 조사 이후 처음으로 40%대를 기록함
 - : 이는 금리인상·주택 가격 하락 지속 등으로 부동산 거래 부진과 시장 심리가 위축된 것을 보여주는 대목임
 - : 8월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29%로, 2009년 1월(-0.55%) 이후 최대 낙폭을 보임
 - : 이 가운데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 4월(116.0) 이후 4개월 내리 하락해, 이번 달 89.9로 집계됨
- ☑ 올 연말까지 미 연준의 고강도 통화긴축 기조, 고물가·한미 기준금리 격차 등에 따른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시그널이 계속 관측되고 있어,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계 심리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주식 가격 전망 : '내릴 것' 45%, 대폭 상승

- 주식 가격 전망 관련, '지금보다 내릴 것'이라는 응답이 급격히 상승하며, 45%를 기록함
 - 9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내릴 것' 45%, '지금과 비슷할 것' 38%, '지금보다 오를 것' 17% 순으로 조사됨
- '오를 것'에서 '내릴 것'을 뺀 '차이'는 전 계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해 주가 하락 전망의 우위세가 두드러짐
- 주가 하락('차이'가 마이너스)을 전망하는 응답이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50대 이상 △여자 30대 △충청 등이었음
- 주가 상승을 상대적으로 높게 전망한 계층은 △남자 3040세대 △사회이의 중시층 등임



Kstat Po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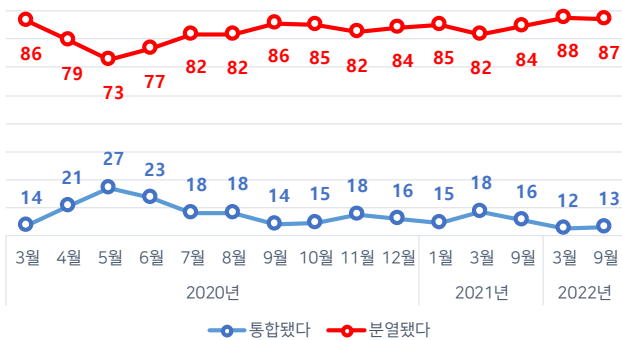
- ☑ '주가 하락' 전망 여론이 큰 폭 상승하며, 주가 하락 전망의 상승세가 꺾였던 지난 8월의 추이가 이어지지 않음
- ☑ 실제 원/달러 환율 급등,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금리인상 지속 등으로 주식시장 분위기가 침체된 상황임
 - : 최근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 지난 8월 2500선을 회복했으나 이번 달 2400선이 무너짐(9.8.기준, 2384.28)
 - : 원/달러 환율은 13년여만에 1,400원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오름(9.14.기준, 1390.9)
 - : 9월 15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내 외국인 보유 주식 시총 비중은 13년여 만에 최저 수준 30.36%로 줄어듦
 - : 이 같은 원화 약세,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예상에 따른 한미 금리 역전 가능성과 외국인의 '셀코리아' 등으로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음

9월 특별지표 : 사회통합 및 계층상승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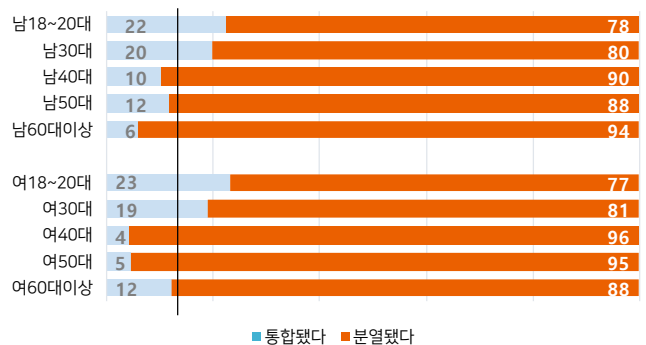
□ 사회통합성 평가 : 우리 사회 '분열됐다' 87%

- 우리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는 응답이 87%로, 작년 7월 이후 8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선생님은 우리나라 사회가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통합됐다'는 응답이 13%, '분열됐다'는 응답이 87%를 기록함
- 모든 계층에서 '분열됐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남자 60대 이상 △여자 4050세대 △자영업자, 주부 등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통합됐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여자 2030세대 △블루칼라,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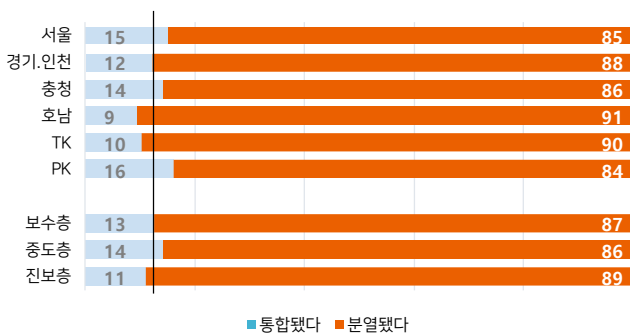
사회통합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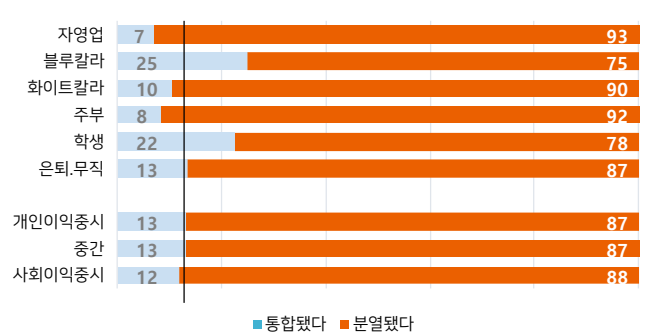
9월 사회통합성 평가: 성/연령별 (2022.09.06.조사,단위:%)



9월 사회통합성 평가: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9월 사회통합성 평가: 직업별,이익증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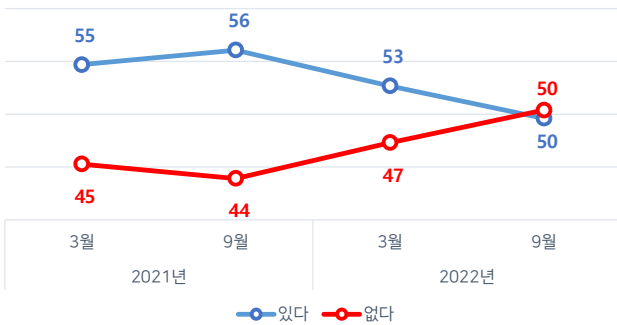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 10명 중 8~9명은 우리 사회가 분열되어 있다고 생각함
 - : 진영 간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던 지난 3월 대선을 전후해 고조된 국민 분열 양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
 - :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3월 대비 호남(+3%p)과 TK(+2%p)의 부정여론이 더 많아져 90%대를 기록함
 - :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은 증가(+2%p), 보수층은 감소(-2%p)해, 부정여론의 증감이 다르지만 전체 평균(87%) 이상의 높은 수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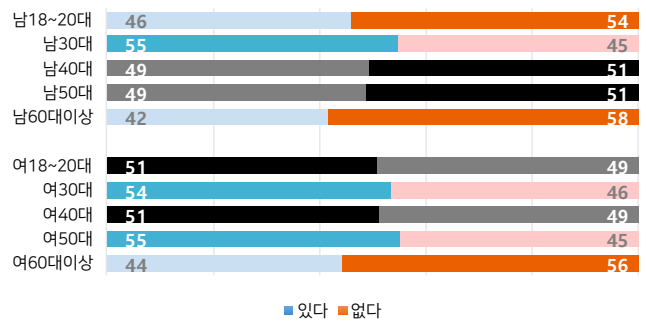
□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 '없다' 50%, 상승세

- 국민통합을 위한 동인 중 하나인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 유무에 대해, '없다'는 응답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음
 -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있다' 50%, '없다' 50%로 조사됨
- 계층별로 응답이 엇갈리는 가운데, 보편적 가치가 '있다'는 응답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30대, 50대 등임
- '없다'는 응답이 두드러진 계층은 △남자 18~20대, 60대 이상 △여자 60대 이상 △TK △주부 등임
- 한편, 두 응답이 팽팽한 계층은 △남자 4050세대 △여자 18~20대, 40대 △PK △보수층, 중도층, 진보층 △자영업자,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사회이익 중시층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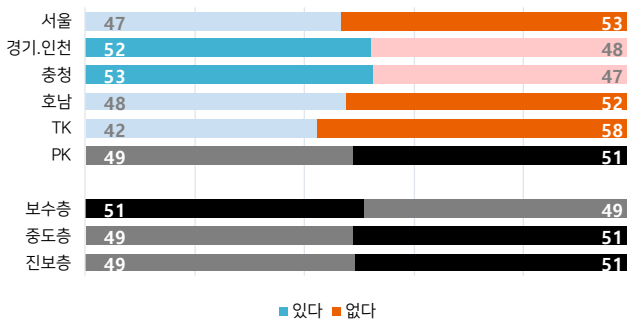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유무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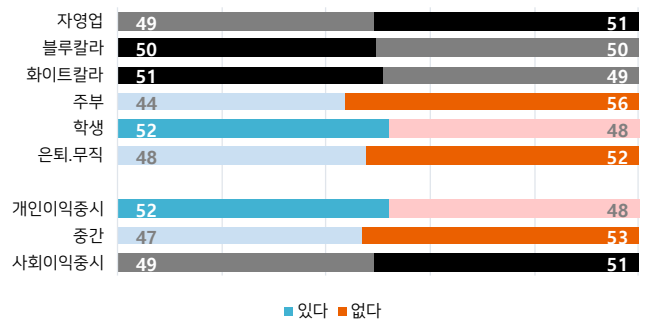
9월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유무 : 성/연령별
(22.09.06.조사,단위:%)



9월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유무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9월 우리 사회 '보편적 가치' 유무 : 직업별,이익중시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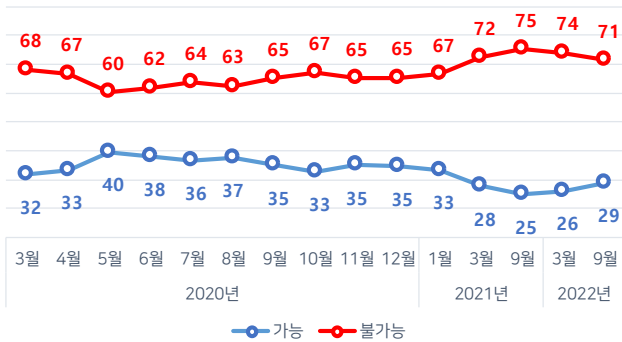
Kstat Point

- ☑ 작년 3월 조사 이후, 보편적 가치가 '없다'는 의견이 점차 증가해 50%를 기록했음
- ☑ 보편적 가치 부재(不在)의 의미는 한국 사회가 조각나 있거나, 그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놓여있음을 의미함
 - : 국민들은 현재 그러한 가치가 존재하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임
 - :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하는 '공정·상식·통합의 정치'에 대해,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아직은 약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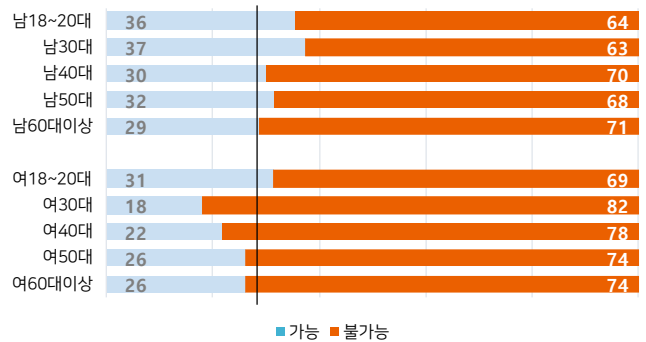
□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개인 노력으로 '불가능' 71%

- 우리 사회의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난 3월 대비 소폭(3%p) 하락했으나, 여전히 70%대에 머물러 있음
 - "선생님은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가능하다' 29%, '불가능하다' 71%로 조사됨
- 모든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30대 △진보층 △주부, 은퇴·무직자 등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이 높은 계층은 △남자 2030세대 △PK △보수층 △자영업자, 학생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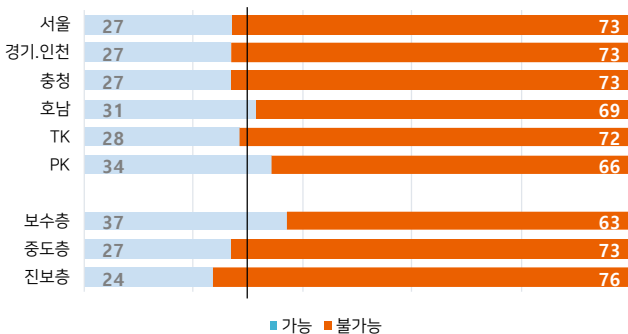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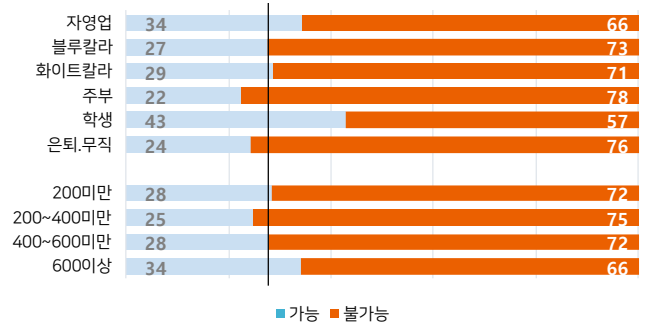
9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성/연령별 (22.09.06.조사,단위:%)



9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9월 계층상승 가능성 평가 : 직업별,소득별 (자료:케이스탯,2022.09.06.조사,단위:%)



Kstat Point

- ☑ 개인 노력으로 계층상승을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여전히 70%선을 유지하고 있음
 - : 낙관적인 응답은 여성보다 남성이, 젊은 연령층일수록, 월평균 가구소득별 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 ☑ 통계청 '2021 사회조사'에서도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우리 사회에서 노력한다면 본인 세대에서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 '낮다'(60.6%) 응답이 '높다'(25.2%)보다 많았음
 - : 그 가운데, 스스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음
 - :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상층 중 55.9%가 계층 이동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한 반면,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하층 중에서는 불과 14.9%만 긍정적이었음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59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59호는 『보수주의자 신조에 대한 국민공감도』이라는 주제로 9월 29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